

<사울의 우울증>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6/17(주일) 설교 내용

사무엘상 16:14-23

1. 오늘 말씀에서, 영적침체가 찾아오는 몇가지 경우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경우가,

- 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경우
- ② 죄를 지은 경우
- ③ 정직하지 못한 경우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혹시 위의 사례들 중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그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목자들도 정직하게 자신의 사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혹시 내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을 때, 또는 극한 낙심과 절망속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천사’와 같은 역할로 다가와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역할로 다가가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
위로해 주고 어루만져 주었던 것처럼..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 마치 천사와 같이 다가와 나를 위로해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그 영적 침체를 꾸짖고 훈계하는 ‘선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꾸짖음과 훈계’ 역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악이라는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질문에서 묻고 있는 것은,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천사의 역할처럼 다가가서
위로해 주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